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화창하고 따뜻한
봄날씨

제목 :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!!

내일이 단원평가라서 공부를 하느라 저녁밥을 조금 늦게 먹었다. 너무 배가 고파서 밥 먹으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갔다. 그런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다. 엄마표 불고기 냄새였다. 형, 엄마와 같이 맛있게 밥을 먹는데 갑자기 강아지 '럭키'가 짖었다. 왜 짖나 하고 봤더니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셨다. 아버지도 불고기가 맛있어 보였는지 같이 드셨다. 거의 1주일 만에 가족 모두가 같이 먹는 저녁밥이었다. 그래서 더욱 맛있었을지도 모른다. 저녁밥을 다 먹고 우리 가족은 인기 TV 프로그램인 '개그 콘서트'를 봤다. 나는 TV를 보면서 '이 세상 누가 만든 음식보다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구나'를 느낀다. 항상 엄마 음식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.

역시 우리 엄마 요리 솜씨가 최고!!